

일주문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5월 21일 동국대에서 청소년전통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신홍사 행사 모집 속초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은 15세 이상 50세 이하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닌 독신남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모집한다. (033)636-7044



제7회 탄허대종사 회교대회 시상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제7회 탄허대종사 선서합양 전국회교대회 시상식을 5월 25일 개최했다.



조계사, 대세지전후불탱화 점안식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5월 20일 소설법전에서 대세지전후불탱화 점안식을 개최했다. (02)732-2187



동련, 제5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은 6월 4-5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해처럼 빛나는 행복의 나라'를 주제로 제5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불광연구원 2011 봉축 학술연차회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생태담론과 생태운동' 주제로 학술연차회를 개최한다.



108산사순례회, 배상룡 코미디쇼 개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 도회 해자 스님은 5월 27일 문경 시민 문화회관에서 '배상룡 추억의 코미디쇼'를 개최했다.



대구봉축위원회 대구봉축위원회 위원장 성문 스님은 5월 20일 반월당 보현사 내 대구불교대학에서 결산평가 회의를 갖고 올해 봉축행사를 회향했다.



제 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6월 11일 부산 흥법사에서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아고라 바자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 불교여성광장(AGORA) 건립 기념바자회를 개최한다.

오대산 보관이 당연

영공 스님, 문화재청장의 의뢰 국가 보관 주장에 반박

"환수되는 의뢰는 반드시 오대산에 보관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불교계와 환수위원회 노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불교와 정책 대표 영공 스님(사진)은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5월 23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스님과 불교와 정책은 조선왕실의게의 오대산 사고 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왕실의게를 국가기관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2006년 1차 반환된 조선왕실의게 오대산 사고본은 논란 끝에 결국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됐다.

이에 영공 스님은 2006년 결정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선왕실의게는 수탈 전부터 400여 년간 보관돼 온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게 오대산 사고본도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네스코도 유형문화재가 본래 위치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스님은 환수 문화재를 모두 국가에서 집중 관리할 경우 문화유산과 지역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중앙집권적인 방식만 할 경우 전국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공 스님은 원칙과 효율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성적 판단만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이런 활동을 어렵게 합니다. 의뢰가 오대산으로 돌아온다면 지방의 문화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공 스님은 의뢰가 오대산으로 돌아와 월정사가 다시 수호총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스님은 우선 조선왕실의게의 오대산 보관 타당성을 강조하는 서한문을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강원도지사 등에게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의뢰가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야 하는 이유가 상세히 열거돼 있다. 문화유산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지역에서 유지돼야 교육적 가치와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의뢰 환수를 위한 월정사와 조계종신도회, 강원도의 노력, 당초 보관된 곳에서 연구를 실시해야 입체적 연구, 중앙과 지역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스님이 의뢰의 오대산 보관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 일로 정부와 불교계가 다시 갈등을 겪는다면 국가적 손실일 뿐입니다. 종단도 의뢰가 오대산에 최종 보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 또한 전통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불사의 하나입니다."

박기범 기자

쉬지않고 달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4~7월 울트라 마라톤 뛰는 진오 스님



스님(구미 대둔사 주지)은 땀이 식기도 전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뇌를 잘라낸 베트남 이주노동자 토안을 위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했던 스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똬친 근육이 풀리기도 전 진오 스

님과 또 한 번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해야 했다. 4월 18일 캄보디아 이주민 문이가 오토바이로 사고로 허리를 수술했다는 소식이였다.

"또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미 다친 사람을 위한 것 보다 예방차원으로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스님의 목소리는 가슴이 겹겹이 타들어간 듯 말라 있었다. 하지만 진오 스님은 포기 하지 않았다. 진오 스님은 다시 달렸다.

5월 28일 울산 태화강 울트라마라톤 100km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헬멧을 보내주기로 했

다. 말로만 하는 안전 교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주민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헬멧을 쓰라고 말해도 절대 쓰지 않기 때문이다. 진오 스님은 1km에 200원, 100km에 2만원을 후원하는 자비 나눔 운동을 계획하고, 6월 1일-8월 31일까지 헬멧 500개 지원금 모금성취 목표를 세웠다. 헬멧 생산 업체는 스님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 시중가 4만 9000원짜리 헬멧을 대폭 할인해 2만원에 헬멧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진오 스님의 달리는 멈추지 않는다. 6월 4일 낙동강 200km 울트라 마라톤, 7월 17일 김해 장유마라톤에서 42.195km를 달렸다. 후원계좌 농협 301-0078-2689-01 예금주 꿈을이루는사람들 www.maha108.net

이상언 기자

원광식 성종사 대표, 명문장수상



제112호 주철장)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돼 원광식(69. 중요 무형문화재

국내 최대의 범종 제작 회사인 성종사가 5월 19일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돼 원광식(69. 중요 무형문화재

키기 위해 제한한 상으로, 불교 관련 업체로는 성종사가 첫 수상이다. 원광식 대표는 17세때부터 범종 제작을 전수받아 1973년부터 성종사를 이끌어 왔다. 평생 범종 제작에만 몰두해 온 원 대표는 중요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명장, 신지식인으로 지정돼 있다. 양양 낙산사 동종 복원을 비롯해 서울 보신각종, 5.18민주의 종, 임진각 평화의 종, 화천 세계평화의 종 등을 제작했다.

원광식 대표는 "태국, 대만, 베트남 등에 지사를 설립해 전세계에 한국 범종을 퍼뜨리는데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부탄 국왕, 일반인과 세기의 결혼



세계 최연소 국왕인 지그메 케사르(31)부탄 국왕이 일반인 여성과 결혼을 발표해 화제다.

지그메 케사르 국왕은 현지시간으로 5월 20일 의회 연설에 참석해 "오는 10월 일반인 여성과 혼례를 올린 다"고 밝혔다.

미국 CNN과 인도 NDTV 등 세계

언론을 통해 소개된 소식에 따르면 지그메 케사르 국왕의 예비신부인 제신 페마(20)는 인도와 영국 레전트 대학에서 유학했다.

이번 결혼식은 지그메 케사르 국왕의 뜻에 따라 간소한 전통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지그메 케사르 국왕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으며 2008년 28세 나이로 부탄의 제5대 국왕 자리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제4대 국왕인 지그메 싱에 왕추크로 '국민 총 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란 개념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힌 바 있다.

이나라 기자

여유가 자비 만든다

티베트 영적지도자 축니린포체



재된 의식, 공포, 습관) 때문에 그러는 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패턴에 대한 여유와 유머는 이해와 자비를 만듭니다."

티베트 영적지도자 축니 린포체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냈다. 5월 23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는 내외국인으로 가득 찼다. 그의 법문은 은유, 예시를 통해 유쾌하고 명쾌했다.

티베트문화원과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특별 법문에서 축니 린포체는 '현대인을 위한 명상법' 소개했다. 그는 내면의 본질적인 행복·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지적 발달이 함께 이뤄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린포체는 "감정, 가슴과 웰빙, 근원적인 사랑을 돌보지 않은 채 조직의 틀 안에서 인지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현대불교 www.hyunbulnews.com 이상언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기원과 세계불교 초대법왕 서경보 일봉존자 원적 15주기 추모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봉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시고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의 창종주 일봉 서경보존자님의 탄신97주기 및 원적 15주기를 추모하는 추모제 및 만등대법회를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기원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일봉존자님과 인연이 있는 문도 및 종도,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일봉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

◆ 일시 : 불기 2555(2011)년 6월 10일 (음 5. 9)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제주 조천체육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만세동산 옆)

◆ 연락 및 문의처

1. 총무원 : 전화 02)998-8161~2
전송 02)998-8384

2. 제주총무원(경운사) : 064)762-7816

3. 각교구 총무원

홈페이지 : http://ilbung.org

◆ 대법주 : 법담 정각

증명법주 : 지공, 명종, 청송, 무찰, 도기, 법운, 원각, 수암, 금봉, 지산, 인왕, 봉암, 일공, 동산, 법광, 혜지, 혜철, 정암, 동원, 양명, 석봉, 해봉, 월인

◆ 대회장 : 의륜

부대회장 : 경원, 송산, 용주, 일명, 해광, 혜천

◆ 봉행위원장 : 화엄

봉행부위원장 : 용암, 용운, 석성, 지우
봉행위원 : 덕봉, 정일, 재성, 도정, 만성, 해일, 자명, 경담, 자건, 지연, 대각, 도허, 경담, 법경, 일운, 대성

◆ 기획위원장 : 삼주

기획부위원장 : 상원

◆ 추진위원장 : 영수

◆ 집행위원장 : 경운

집행부위원장 : 제법
집행국장 : 해암, 문상철

◆ 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장 : 법영
진행분과위원장 : 광은
의전분과위원장 : 보월
재무분과위원장 : 지운
경호분과위원장 : 석경
섭외분과위원장 : 지현
봉사분과위원장 : 광명심
홍보분과위원장 : 서병렬
총무위원 : 해동
현공위원 : 대성
의전위원 : 정철
재무위원 : 동해
경호위원 : 법일
여성부장 : 현순화
봉사위원 : 지현
홍보위원 : 정건

◆ 동원위원장 : 보혜, 동정, 지성, 고봉,

현단, 승원, 해동, 혜성
동원위원 : 혜정

주최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 전국일봉문도중앙회 / 주관 : (재)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제주교구